Narrow Implant를 통한 구치부 수복시 날개구조의 역할

은평치과
이영만

일반적으로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 가능하면 5.0mm의 임플란트를 사용 할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구치부라 할지라도 치조골의 폭이 좁아서 넓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심한 염증이 있는 치아를 발거하거나 발거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치조골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골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선택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골 증대술을 시행 하거나 직경이 가는 임플란트 (narrow implant)를 심는 것이다. 그러나 골 증대술은 고난이도의 수술적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술자나 환자가 모두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치조골의 양이 제한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가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골 이식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골 이식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면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들 중 구치부, 특히 대구치 부에서 가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관련된 지견을 발표하고자 한다